

Pastoral Column

목회칼럼

5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박영호 (창원새순교회 담임목사)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
박영호(창원새순교회 담임목사)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값비싼 컨설팅 비용을 들여서 마치 기업진단을 하듯 교회를 진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나온 역사를 볼 때 교회는 생명주기를 따라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탄생하여 성장기와 정체기와 쇠퇴기를 거쳐 소멸하고 다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체기와 쇠퇴기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진단도구들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본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정체 아니면 쇠퇴기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성장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가져야 할 절대 가치의 소중함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첫째,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을 품은 교회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교회를 통

해 나타내는 것이다. 교회의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신다.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끊임없이 담아내는 교회이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엡 3:9-11).”

둘째, 건강한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교회이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그 주권은 주님께 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16:16) 라고 신앙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고 하셨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주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골1:18). 건강한 교회는 머리와 몸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이다. 교회의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머리와 몸이 얼마나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가? 몸이 얼마나 머리의 지시를 받고 있는가? 몸으로서의 교회가 머리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셋째, 건강한 교회는 성 삼위 하나님과 함께 세워 가는 교회이다.

성령님은 온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권적으로 주시고, 주님은 직

분을 주시고,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일할 때 성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전12:4-6).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살전1:1). 물론 지상 교회 공동체가 각 지역의 주소지를 두고 모여 있지만 그 원천적 주소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건강한 교회는 교회를 재생산하는 교회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일생을 바친 것은 ‘교회 세우기’였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주신 직분으로서 교회의 일꾼’(골 1:25)임을 자랑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날마다 그 속에 늘리는 것은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었다(고후11:22). 그가 쓴 바울 서신은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주어진 메시지였다. 그는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도자이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양성하여 파송하고, 장로를 세웠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선교단체나 복지기관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데 사역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를 재생산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다섯째, 건강한 교회는 그 공동체의 성숙을 지향하는 교회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세 가지를 주목했다. 그가 극찬한 교회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인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살전1:2,3; 살후1:3,4). 바울이 지역교회를 평가할 때 바라본 이 세 가지 관점이 바로 교회 공동체

의 성숙이다. 예를 들면 골로새교회는 예수 안에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교회였다(골1:3-5). 에베소교회는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 감사 기도를 드렸으며, 부족한 소망을 위해서는 기도했다(엡1:16-18). 그러나 에베소교회는 후일에 첫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촛대를 옮기겠다는 회복 경고를 받았다(계2:4,5). 고린도 교회는 믿음도 있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랑은 부족하여 강한 책망과 권고를 받았다(고전13장). 지역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바울처럼 자신의 교회를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성숙을 지향하는 사역을 배워야 한다.

여섯째,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갖는 비전이 이끄는 교회이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비전은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주님의 꿈은 모든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다(마28:18-20, 행1:8). 교회는 주님이 품고 있는 모든 민족과 땅 끝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천지 창조라는 시작 지점과, 새 하늘과 새 땅인 끝자락의 중간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는 꿈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꿈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회가 건강한 목회이다.

건강한 목회는 어떤 목회인가?

첫째, 건강한 목회는 말씀과 기도 목회이다.

말씀과 기도 목회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시면서(마9:35), 습관을 좇아 기도하는 목회를 하셨다(막1:35-39, 눅22:39). 사도들은 이런 목회를 계승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자 결단했다(행6:4).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춘 시점과 말씀과 기도 중심의 목회에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 기도시간이 줄어든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지적을 의미심장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적어도 목사는 성경을 통달하고 자신의 목회 사역을 마칠 때, 전 성경을 충분히 설교하고 가르쳤다는 충족감을 가지고 은퇴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삼 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처럼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행20:31,32). 전 성경을 한 장,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전하는 말씀 사역을 해야 한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작정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스 7:9-10).

둘째, 건강한 목회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목회이다(골1:28).

목회자 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동역자를 세워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성장주의 목회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하기 어렵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삶 속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한다. 주님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마28:18-20). 기능적인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 행동할 줄 아는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엡4:11-12).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각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건강한 목회이다.

셋째, 건강한 목회는 돌봄의 목회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만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 받으러 왔던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리시며 그들을 내쫓으려는 제자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꾸짖으시며 오히려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던 분이셨다(막10:13-16).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의 여린 마음을 헤아리시고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교정해 주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목회자는 가져야 한다. 사도 바울은 유순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 같이, 때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목회를 했다(살전2:7, 11-12). 건강한 목회는 성도들의 연약과 아픔을 품고 돌보는 목회이다.

넷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작동되는 목회이다.

사람이 주인이 아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목회여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도 장로도 그 어떤 자도 결코 왕 노릇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권위구조의 원리이다. 하나님은 가정과 사회와 학교, 국가에 권위자를 세우다스리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와 장로라는 권위구조가 있다. 노회가 교회의 대표로 파송한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함께 치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가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지만 마음대로 통치하지 않고 법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주셨던 언약법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의 원리이다. 교회도 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거기에 사랑이 있다. 교회의 권위자인 목사와 장로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상식이 통하는 목회를 해야 한다.

다섯째는 건강한 목회는 교회의 핵심 기능이 잘 작동되는 목회이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교회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도록 해야 한다. 성도가 서로를 책임질 줄 아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객관화해야 한다. 교회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자기를 세우고 싶어 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점검해야 한다. 점검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목회하실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면 이렇게 할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인가?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비전을 실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가? 교회의 기능들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해답은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을 통해 부지런히 답을 찾아 갈 때, 건강한 목회가 이루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